Kodex www.kodex.com



2010년07월30일 기준

KODEX레버리지 ETF (122630)

Kodex 는 한국을 대표하는 ETF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의 ETF 상품 브랜드입니다.

펀드운용목적

KODEX 레버리지 ETF는 KOSPI200주가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기초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양(陽)의 2배수로 연동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그 운용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일간단위로만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양(陽)의 2배수로 추구하는 것이므로 투자기간 전체에 대해서 누적하여 양(陽)의 2배수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투자신탁은 일반적인 주식투자보다 높은 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동시에 주식시장의 변동성 등 재무적인 지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고위험 상품입니다.

지수 소개

KOSPI200지수는 한국을 대표하는 200개 종목의 시가총액을 지수화한 것입니다. 200개 종목은 시장 대표성, 유동성, 업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데, 전체 종목을 9개업 군으로 분류하여 시가총액과 거래량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우선 선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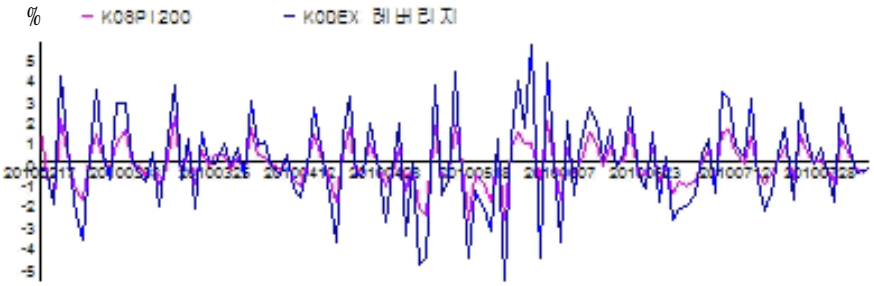
펀드누적수익률(분배금 재투자 가정) (단위 : %)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4년	설정후
Kodex 레버리지 ETF	7.86	-0.41						15.02
기초지수 (KOSPI200)	3.80	0.57						7.41

펀드개요

펀드명	삼성 KODEX레버리지증권 ETF[주식-파생재간접형]
기초 지수	KOSPI200
펀드순자산총액	1,102.48억원
순자산가치(NAV)	11,484.13원
신탁보수	연 0.93%
최초 설정일	2010.02.17
배당	설정후 매1년(배당금 발생시)
운용회사	삼성자산운용
사무수탁회사	한국예탁결제원
수탁은행	HSBC 서울지점

일별수익률 그래프(분배금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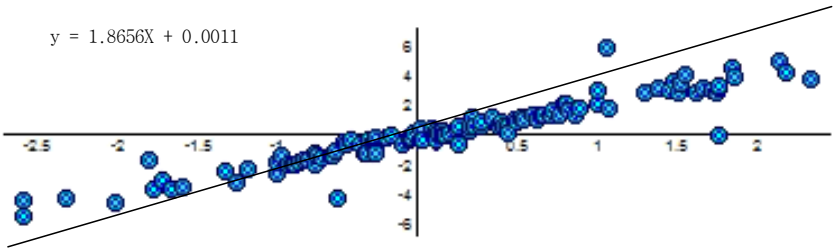


거래정보

거래소	한국거래소
표시통화	원
거래단위	1주
설정단위	200,000주
거래소코드	122630
ISIN코드	KR7122630007
블룸버그 Ticker	122630 KS <Eq>

일간 수익률 분포도

Y축 : KODEX 레버리지 ETF 일간수익



X축 : KOSPI200 일간수익률

투자 분배금 지급 현황 (단위 : 원)

1차 (2011년 2월)	0
2차 (2012년 2월)	0
3차 (2013년 2월)	0
4차 (2014년 2월)	0

기초지수 구성 현황

종목명	비중(%)
삼성전자	14.74
POSCO	5.41
현대차	3.84
신한지주	2.82
LG화학	2.64

포토폴리오 구성종목

종목명	비중(%)
KODEX 200	82.80
KOSEF 200	21.16
코스피200 F 201009	95.62

※ 포트폴리오 구성종목은 PDF구성내역에 기초한 것으로 실제 보유내역과 다를 수 있습니다.

07월 시장리뷰

7월 주식시장은 유럽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대한 불안감과 경기둔화에 대한 걱정을 기업들의 양호한 2사분기 실적이 덜어주면서 글로벌 주식시장 전체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역시 글로벌 증시의 강세를 배경으로 기대이상의 기업실적을 보여주면서 종합주가지수는 3.59%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증권업종이 초강세를 보인 반면, 정부의 정책 규제가 여전한 제약,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운송과 비철금속 업종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 2010년 7월 1일부터 본펀드의 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과거 운용 실적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KODEX ETF의 장점

접근성

ETF는 이해하기 쉽고 가장 손쉬운 주식투자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식과 같이 실시간으로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품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또한 HTS거래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권사를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판단의 용이성

개별종목에 대한 정보와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투자로서 투자판단이 용이합니다. ETF는 매일 TV와 신문등에서 볼 수 있는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움직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효율성

단 한번의 거래로 시장대표지수 및 섹터지수 구성종목을 매수 또는 매도 할 수 있습니다. 기관투자자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낮은 리스크하에 장기,안정적으로 운용 할 수 있으며 개인 투자자의 경우 적은 자금으로도 주식시장 전체 혹은 업종과 테마에 대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분산투자에 의한 위험 저하

특정종목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당해 회사의 영업실적이 악화되거나 파산시 예기치 않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지만 ETF에 투자하는 경우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투자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낮은 투자비용

일반펀드에 비해 ETF의 운용보수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매도시 증권거래세(0.3%)가 부과되지 않아 거래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KODEX ETF의 투자방법

거래소시장에서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매매

개인투자자와 기관 모두 HTS나 모든 증권사 지점을 통해 주식을 매매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매매 할 수 있습니다,

발행시장에서 설정 및 환매 단위(CU)로 투자

기관투자자는 지정판매사(AP)를 통해 발생시장에서 ETF를 설정/환매할 수 있습니다.

지정판매사(AP)

발행시장에서 ETF의 설정 및 환매를 중개를 담당하며 지정판매사의 일부는 유동성 공급자로 지정되어 유통시장에서의 유동성 공급을 담당하는 국내증권사입니다.(www.kodex,com 에서 확인가능)

NAV(Net Asset Value)

펀드의 순자산가치로써 ETF매매의 기준이 됩니다. HTS등 주요 정보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시되며 ETF 매매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채권 및 어음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등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수산출 방식의 대폭 변경 또는 중단 위험이 투자신탁이 추적하는 기초지수를 관리하는 지수관리회사의 사정으로 그 지수의 산출방식이 대폭 변경되어 집합투자업자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투자전략으로 더 이상 그 지수를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수관리회사의 사정 또는 기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지수의 발표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운용이 중단되고, 상장 폐지 및 이 투자신탁의 전부해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수익자는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위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이 투자신탁에 추적오차가 발생하고 동 추적오차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신탁의 원본액이 일정액 미만으로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거나, 수익자가 규정에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은 상장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은 해지되고 잔여자산을 분배할 것이나, 잔여자산 분배시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유통시장을 통한 수익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대하지 않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수익자의 투자자금 회수 곤란위험

개인수익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만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즉, 개인투자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거래가 부족하여 개인수익자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개인수익자가 보유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법인수익자의 경우 보유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거나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설정단위 또는 그 정배수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 신청할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서 환매가 가능합니다.

지수산출방식의 대폭 변경 또는 중단 위험

이 투자신탁이 추적하는 기초지수를 관리하는 지수관리회사의 사정으로 그 지수의 산출방식이 대폭 변경되어 집합투자업자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투자전략으로 더 이상 그 지수를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수관리회사의 사정 또는 기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지수의 발표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운용이 중단되고, 상장 폐지 및 이 투자신탁의 전부해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수익자는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추적오차 발생위험

이 투자신탁은 KOSPI200주가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기초지수 일간변동률의 양(陽)의 2배수로 연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투자신탁보수, 위탁매매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 등 현실적 제한으로 인하여 기초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양(陽)의 2배수와 동일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적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과 기초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양(陽)의 2배수가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위험

레버리지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 집합투자증권,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의 차입 및 파생상품 등을 활용하여 순자산보다 더 큰 주식투자비중을 유지하는 투자신탁으로 KOSPI200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그 투자성과가 더 큰 폭으로 변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KOSPI200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고 KOSPI200주가지수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움직이는 경우에는 지수의 성과조차 추적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레버리지 투자를 완성하므로 파생상품의 내재변동성 및 민감도에 따라 다른 수익이 실현될 수도 있으며 투자한 파생상품과 관련 증권 또는 지수 등과 불완전 상관관계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KOSPI200주가지수의 기대수익과 변동성 등의 시장상황에 대한 이해와 재무적인 사전지식에 기반하여 투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런 사전적인 검토에도 불구하고 기대와는 다른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복리효과에 의한 위험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KOSPI200주가지수 일간변동률의 양(陽)의 2배를 일간단위로만 추구(상승할 경우에도 2배, 하락할 경우에도 2배를 추구)하는 투자신탁으로 투자기간, 시장평균성과, 변동성, 왜도 및 첨도 등에 따라서 투자자는 결과적으로 양(陽)의 2배를 확보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수의 성과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방법상의 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 집합투자증권, 환매조건부 증권의 매도, 증권의 차입 및 파생상품 등을 활용하여 순자산보다 더 큰 주식투자비중을 유지하는 투자신탁으로서 일간 주식시장 성과의 양(陽)의 2배수를 추구합니다. 동 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빈번한 선물거래가 이뤄지거나 현물주식거래가 이뤄질 수 있어서 일반적인 투자신탁보다 더 높은 매매회전율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레버리지 비율이 더 확대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레버리지 비율이 감소하고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레버리지 비율이 증가하므로 주가하락시 더 큰 하락 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에는 상대적으로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레버리지 비율이 극단적으로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누적수익률과 괴리위험

이 투자신탁은 KOSPI200주가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기초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양(陽)의 2배수로 연동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그 운용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일간단위로 기초지수가 오를 경우에도 양(陽)의 2배수를 추구하고 떨어질 때에도 양(陽)의 2배수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투자기간 전체에 대해서 누적하여 양(陽)의 2배수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롤오버(Roll-Over)위험

이 투자신탁은 KOSPI200주가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기초지수 일간변동률의 양(陽)의 2배수로 연동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가지수선물의 매수, 주가지수선물 옵션을 이용한 합성선물 매수, 또는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선물 또는 옵션은 현물과는 달리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차기(次期) 선물 또는 옵션으로 다시 재투자하여야 하는데 재투자가격이 만기일의 만기상환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위험(이를 롤오버[Roll over] 위험이라 합니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투자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할 위험이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

장외파생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노출되며 일일 정산 또는 수시정산 등의 운용방법을 통하여 동일 거래상대방 기준으로 장외파생상품 매매 거래의 만기까지 거래 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금액이 순자산총액의 10%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운용하더라도 급격한 시장 변동, 거래상대방의 신용 악화 및 기타 예측하지 못한 변수로 인해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으로 인한 최대손실금액이 순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세금 부담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신탁운용의 효율성 또는 안정성의 제고 및 기타 투자신탁운용상의 다양한 사유로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장외파생상품 투자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장내파생상품과 달리 과세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서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장외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과세상 이익에 합산하여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ETF 손익구조 오차위험

이 투자신탁은 KOSPI200주가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양(陽)의 2배수로 연동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신탁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누적적으로는 KOSPI200주가지수 누적수익률의 양(陽)의 2배수를 추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일시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이 투자신탁과 KOSPI200주가지수의 누적수익률간의 음(陰)의 상관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환매조건부 매도 불가능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조건부 매도를 통한 레버리지 전략을 추구하므로 환매조건부 매도가 불가능한 경우 투자전략의 지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보유증권 매도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환매조건부 매도거래 금리 상승 위험

환매조건부 매도는 일정 기간마다 그 시점의 CD금리 및 스프레드에 연동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CD금리가 상승하면 조달비용 상승으로 펀드 투자수익률이 하락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차거래 불가능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대차거래를 통한 레버리지 전략을 추구하므로 대차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투자전략의 지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보유 증권 매도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대차거래 비자발적 중단 위험

현행 대차거래 관행은 대여자가 상환을 요청할 경우 12시 이전인 경우 T+2일, 12시 이후인 경우 T+3 시점에 차입자는 상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Roll-Over할 대여자를 못 찾는 경우 대차거래가 비자발적으로 중단될 위험 존재하며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지수와의 상관관계 저하 위험

이 투자신탁의 성과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은 일간단위로 기초지수와 투자신탁의 성과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투자신탁이 일간단위로 높은 상관관계 달성하지 못하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지수와 투자신탁의 일간 단위 성과가 높은 상관관계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장변동성 상승에 따른 복리 효과 상승 위험

이 투자신탁은 일간 단위로만 기초지수 일간변동률의 양(陽)의 2배수를 추구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2일 이상 보유한 경우 투자신탁의 일간 변동률만큼 투자기간 동안의 수익률이 복리(複利)로 계산됩니다. 특히, 시장 변동성이 높아지는 경우, 복리효과로 인해 장기 투자수익률은 기초지수 일간변동률의 양(陽)의 2배수의 누적수익률보다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변동성이 증가할수록 더욱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2일 이상의 투자신탁 수익률은 기초지수의 성과뿐만 아니라, 기초지수의 변동성, 레버리지 관련 금융비용, 기타 투자신탁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투자대상자산으로부터의 배당 및 투자기간 등이 반영되어 산출될 수 있습니다.

시장거래에 따른 순자산가치와의 괴리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며 시장가격으로 유통시장을 통해 매매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시장 가격은 순자산가치(NAV) 및 유통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시장가격은 이 투자신탁에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 NAV보다 높게 또는 낮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

순자산가치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유동성 위험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라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 " 제2부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신탁 규모 변동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투자신탁 해지 위험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 또는 해산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소규모의 위험

투자신탁의 설정금액이 소액이거나, 환매 등에 의해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분산투자 등 원활한 펀드 운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신탁의 규모가 작아지는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려워져 KOSPI200주가지수 일간변동률의 양(陽)의 2배를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가격변동폭 제한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이 상장되어 있는 한국거래소의 개별 종목에 대한 가격변동제한폭(상/하한 ±15%)이므로 기초지수 일간변동률의 양(陽)의 2배수가 상하한 ±15%를 초과하더라도 가격변동제한폭 이내에서 거래가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기초지수 일간변동률의 양(陽)의 2배수로 연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변동제한폭으로 인해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와 거래가격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펀드의 전망 및 투자전략에 관한 참고자료로서 광고, 기타 판매권유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투자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자에게 있으며, 당사는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